

# 1967년 민족기록화전(民族記錄畵展) 고찰

---

황정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미술사학 전공

hjungyon@aks.ac.kr

---

I. 머리말

II. 1967년 민족기록화전의 개최 배경과 준비 과정

III. 1967년 민족기록화전의 출품작과 작품의 행방

IV. 1967년 민족기록화전의 성격과 의의

V. 맺음말

---



## I. 머리말

---

‘민족기록화’는 1967년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복궁미술관에서 개최된 민족기록화전(民族記錄畵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민족기록화 제작의 필요성을 주장한 일부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까지 학계나 미술계에서는 쓰이지 않은 낯선 단어였다.

사전적인 의미로 민족기록화는 중요한 사건이나 행사, 인물의 활약상을 사실에 근거해 시각화한 ‘기록화’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강조한 ‘민족’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이다. 따라서 민족기록화를 우리 민족의 기념할만한 사건이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라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예를 들어 임진왜란 전투 장면을 그린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1760)를 비롯해 <부산진순절도(釜山鎭殉節圖)>(1760), <임진전란도(壬辰戰亂圖)>(1834)와 같은 조선시대 전쟁화 역시 민족기록화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1).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민족기록화는 박정희 정권기(1961~1979)인 1967년부터 1979년까지 국가가 주도해 전쟁사, 구국위업, 경제발전, 문화 분야에 걸쳐 한국화가와 서양화가들을 동원해 제작한 그림으로 국한된다.<sup>1</sup> 이는 민족기록화라는 용어가 특정 시기의 주체 세력에 의해 만들어져 통시대적으로 쓰이지 않은 용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첫 민족기록화 제작 및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이에 대한 뚜렷

---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3-P02). 현재 연구팀은 정책연구과제의 내용을 발전시켜 ‘국가와 미술(I): 1960-70년대 한국의 민족기록화 제작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며, 2차년도(2025)에는 주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1 정갑영, 『한국문화정책 형성과정과 김종필의 역할 연구』(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56~157쪽.





그림1-변박, <부산진순절도>, 1760, 비단에 채색, 145×96cm, 육군사관학교박물관 소장

한 개념이나 범주를 설정하기보다는 선조들의 애국정신과 사적(事跡), 고난 극복을 주제로 한 그림 정도로 광범위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1967년 민족기록화전 개최 당시 배포된 전시팸플릿에서 민족기록화를 두고 “민족의 얼을 담고 민족사를 아로새긴 기록화”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1979년 민족기록화 제작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기까지 크게 변함이 없었다.<sup>2</sup>

2 「민족기록화전(Korean Heritage Painting Exhibition) 전시팸플릿」(1967, (재)5.16민족상·국방부·문교부·공보실). 이러한 초창기 민족기록화의 개념과 제작 목적은 1970년대 이후 출간된 전시도록이나 화보집 서문의 내용을 볼 때,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서출판공사(편), 『民族記錄畫集』(서울: 한국도서출판공사, 1979); 최찬욱, 『민족의 슬기』(서울: 국방부정훈국, 1979); 국방부정훈국(편), 『민족기록화 해설: 민족의 슬기』(서울: 국방부정훈국, 1979);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민족기록화: 경제편』(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2) 참조. 한편 정부는 1973년 문예진흥 5개년



여기서 특이한 점은 미술작품을 바라보는 데 ‘민족’의 의미가 대단히 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록화의 주제와 성격이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이 깊기도 했지만, 1960년대를 전후로 국가정책에 광범위하게 적용된 정치이념 중 하나가 민족주의였다는 사실과도 상통한 지점이 있다. 민족기록화 제작이 5.16군사정변 후 추진된 문화정책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당시 군사정부가 지향한 민족주의는 지식인들, 특히 학생운동 세력이 4.19의거를 통해 반봉건·반외세 등을 외치며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낸 것과 현상을 같이한다. 군사정부는 지식인들의 주장이 자주와 자립을 지향한 강력한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라 선전하고 자신들을 상징하는 정치 노선으로 삼았다.<sup>3</sup> 따라서 민족문화 선양 역시 문화 분야에서 우선시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족기록화 제작을 추진한 김종필(金鐘泌, 1926~2018)과 이원엽(李元燁, 1924~2014) 등 5.16 관계자들이 민족주의를 수용하고 정책화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단지 ‘기록화’가 아닌 ‘민족기록화’라는 용어를 특정해 사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4</sup>

---

계획의 일환으로 민족기록화 제작을 기획하면서 경제편 주제 30점, 민족사 주제 20점을 그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經濟개발 성과를 記錄』, 《매일경제》, 1973년 3월 8일). 그러면서 경제개발 주제 그림을 ‘경제개발성과기록화’, 민족사 주제를 ‘民族史畵’라고 지칭했다. 이는 아마도 경제발전 주제의 경우 화가들이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을 직접 답사해 그렸기 때문에 고증이 담보된 ‘기록화’인 반면, 민족사 주제는 주로 과거사를 다루었기 때문에 실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는 한계를 의식한 구분이 아닌지 추정된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을 수록한 도록의 제목은 ‘민족기록화’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큰 틀에서는 모두 기록화의 범주로 인식했음을 말해 준다.

- 3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서울: 갈무리, 2006); 오제연,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16(2007), 285~324쪽.
- 4 김종필의 경우 「5.16혁명과 민족주의」, 《新思潮》 1-6(1962), 38~47쪽에서 군사정변이 조국근대화를 위한 민족주의 이념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했으며, 이후에도 한국적 민족주의



1960년대 새로운 정권 탄생과 맞물려 민족주의를 지향하던 분위기 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한 민족기록화는 외적과의 싸움, 독립운동, 광복, 6.25전쟁 등 주요 역사 사건에 기초한 작품인 만큼 사실적 기법의 구상화(具象畵)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하거나 이상화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그림2). 이렇듯 사실에 충실한 고증이나 재현을 전제로 한 기록화 본연의 기능을 추구하면서도 작가의 역량을 동원해 역사적 사건을 그린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민족기록화는 ‘역사화(歷史畵)’의 범주에서 논의되기도 했다.<sup>5</sup>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 착수 첫해인 1967년부터 민족기록화라는 용어를 지목해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기록화와 역사화 모두 서로 지향하는 회화적 표현이나 고증 수준은 비슷할 수 있으나, 민족기록화라는 용어 자체가 1960~1970년대 동안 한국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회화의 보

---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여러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1960년대 민족의 개념에 관해서는 박찬승,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 형성」, 『개념과 소통』 1-1(2008), 79~120쪽; 이하나, 「1970-1980년대 ‘민족문화’ 개념의 분화와 쟁투」, 『개념과 소통』 18-18(2016), 169~211쪽 참조.

- 5 역사화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기념할 만한 사건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그림’을 뜻한다. 사건과 사실을 조형화하는 의미로서의 역사화는 미술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역사화’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유럽에서는 18세기 말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동아시아에서는 1890년대 유럽 화단에서 역사화의 개념을 도입한 일본 작가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화는 일본식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역사화의 개념과 전통에 대해서는 박정혜, 「조선시대의 역사화」, 『조형』 20(1997), 8~36쪽; 정형민, 「한국 근대 역사화」, 『조형』 20(1997), 37~57쪽 참조.
- 한편, 역사화와 민족기록화의 성격에 대해, 前者의 경우는 대개 정치적·제정적으로 미술가를 후원한 왕족과 주류 세력이 愛國의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위해 정치적 매개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후자는 체제순응적이거나 반체제적이든 작가 개인의 시대정신과 이념의 표현 수단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는 주장도 있다. 김재수, 「현대 역사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30(2011), 255~276쪽.





그림2-정창섭, <조헌 의병장의 금산 전투>, 1975, 전쟁기념관 소장

편적인 장르인 역사화와 구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민족기록화에 관해서는 1980년대 《계간미술》, 《공간》 등 몇몇 미술잡지에서 추진 과정과 작품 내용 등이 간간이 논의되었을 뿐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1997년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정영목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명된 후,<sup>6</sup> 2000년대에 들어와 미술평론가와 미술사학자들 사이에서 점차 관심을 받으며 관련 연구서가 진행되었고, 최태만의 박사학위논문과 박혜성, 조기쁨 등의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성과를 발표했다.<sup>7</sup> 최근에는 인문정보학 분야에서 민족기록화 도록

6 정영목, 「한국 현대 역사화: 그 성격과 위상」, 『조형』 20(1997), 58~78쪽. 이 글에서는 민족기록화를 주제에 따라 '민족기록화', '전쟁기록화', '산업기록화'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7 1960~1970년대 제작 민족기록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위논문 3편을 포함해 박정희 정권의 미술정책, 당시 한국화단의 경향에 관한 소논문에서 다루었으며, 다른 동시기 회화사 주제에 비해 연구 성과가 비교적 소략한 편이다. 주요 논저로 다음을 참조.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1998), 83~106쪽; 박영택, 「박정희 시대의 문화와 미술」,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5(2005), 207~241쪽; 최태만, 「한국전쟁과 미술: 선전 경험 기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최태만, 「현대 한국미술과 민족주의란 두 개의 얼굴」, 『미술이론과 현장』 4(2016), 145~180쪽; 안인



에 실린 사진을 DB화하여 서로 연관된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족기록화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sup>8</sup> 그럼에도 여전히 민족기록화 제작에 영향을 끼친 박정희 정부 시절의 정치 배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당대 대표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는데도 작품 수준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학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민족기록화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제작과 향유, 활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의 출발점이 된 1967년 민족기록화 전시회를 조명하고자 한다.<sup>9</sup> 소위 ‘경복궁 전시회’라고도 알려진 최초의 민족기록화

---

기,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와 미술의 변화에 대한 연구」, 『예술교육연구』 9-3(2011), 33~44쪽; 김현화, 「박정희 정부의 문예진흥정책과 현대미술」, 『미술사논단』 42(2016), 131~159쪽; 박혜성, 「1960-70년대 민족기록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채효영, 「박정희 정권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기록화 사업: 《구국위업편》, 《전승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와 예술』 7(2010), 68~92쪽; 김재범, 「육군박물관 소장 민족기록화 연구」, 『학예지』 24(2017), 47~78쪽; 조기쁨, 「전쟁 주제의 민족기록화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 8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Wiki(<https://dh.aks.ac.kr/Edu/wiki>). 이 사이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인문정보학 전공에서 한국문화의 다양한 키워드를 뽑아 인물, 이미지, 기록 등을 서로 연계해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며, 민족기록화도 그중 하나이다. ‘민족기록화’ 항목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민족기록화를 비롯해 1970년대 전시 도록에 수록된 작품 사진을 위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민족기록화의 고해상 사진을 제공해 주신 김바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9 1967~1979년 동안 정부의 민족기록화 제작사업을 통해 공식적으로 그려진 작품은 총 159점이며, 참여 작가는 71명으로 집계된다. 1970년대 이후 유행한 현충사나 세종대왕기념관, 동학기념관 건립 등 성역화사업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역단체들이 민족기록화라는 명목으로 작가들에게 개별 의뢰해 그린 사례는 최근까지 이어질 정도로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두 민족기록화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민족기록화 제작사업은 1973년부터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에 포함되었고, 이때 실무를 담당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정식으로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조성·관리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범위를 1967년 최초의 민족기록화 및 1973~1979년 동안 문화공보부



전시회는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기록화 제작의 과정과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이러한 이유로 선행연구에서도 종종 중요하게 언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단독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정치적 배경에 집중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작품 제작과 전시회의 실상을 알려 주는 각종 자료를 통해 추진 경위, 출품작과 전시회의 성격, 당대의 평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그림의 행방에 대해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을 홍보하기 위한 정치미술로 주로 인식되어 온 민족기록화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II. 1967년 민족기록화전의 개최 배경과 준비 과정

---

1948년 제1공화국이 수립된 후 이승만 정부는 위정자를 우상화하기 위한 기념물을 비롯해 이순신, 안중근, 맥아더 장군, 밴 플린트 장군 등 한국의 위인과 6.25전쟁기 활약한 외국 장성들의 동상을 건립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고,<sup>10</sup> 이러한 국가주도의 미술정책은 제3공화국과 유신정권기인 박정희 정부에 들어와 더욱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

와 진흥원에서 관리한 작품으로 좁히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민족기록화의 범주에 관해 뚜렷하게 논의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1967~1979년 동안 제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다룬 것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해당 기간에 그려진 작품 중 민족기록화로 지칭한 작품에 한정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 10 제1공화국 기간 중 기념물과 동상을 활발하게 건립했던 이유는 이승만 정부가 표면적으로 애국선열 숭모사상에 기초한 민중계몽 목적을 표방했으나, 남한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불안정한 정통성을 해소하고자 偶像을 통해 민족적 이미지를 입히는 작업에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조은정, 『권력과 미술,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서울: 아카넷, 2009), 198~220쪽.



민족문화 전통과 계승, 성역화, 국민계몽, 애국과 반공정신을 강조한 1960·70년대 분위기 속에서 각종 산업·역사기념물과 충혼탑, 선열(先烈) 동상이 어느 때보다 많이 건립되었고, 한민족의 역사를 그림으로 기록한 민족기록화 역시 박정희 정부의 대표적인 선전미술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다.<sup>11</sup>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대다수 선행연구에서는 민족기록화의 제작과 활용에 대해 1960~1970년대 집권세력의 정치적 신념을 투영해 정권의 정체성을 확보하거나 국민들에게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sup>12</sup> 따라서 민족기록화 제작의 주체인 국가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었고, 현존 작품을 통해 볼 때에도 주제나 소재 면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시각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1967년 최초의 민족기록화 제작과 전시가 시기적으로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기록화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이었다는 점, 고대~현대에 이르는 한국사의 다양한 국면을 회화작품이라는 시각물로 대체해 전시라는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처음 선보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성격도 있다. <표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67년 첫 전시 이후 ‘민족기록화’라는 공통된 제명하에 작품 제작과 전시회까지 이어진 경우는 1974년(경제편), 1975년(전승·경제편), 1976년(구국위업편) 총 3회뿐이다. 1972년에 개최한 새마을미술전과 월남전기기록화전은 전시회명에 민족기록화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고, 1977~1979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한 민족기록화-문화편 14점의 경우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별도의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고 도록만 발간되었다.<sup>13</sup> 이는 작품 제작 후 전시로 이어진 사례의 경우 개최 배경

11 김영나, 『1945년 이후 한국의 현대미술』(서울: 미진사, 2022), 178~187쪽.

12 박혜성, 앞의 논문(2003), 76~80쪽; 조기쁨, 앞의 논문(2019), 33~34쪽; 채효영, 앞의 논문(2010), 70~80쪽.

13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민족기록화-문화편』(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7/1978/



표1-1960~70년대 민족기록화 전시회 개최 현황

전시회명	주최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출품작 수량	전시 대상(주제)
민족기록화전	(재)5.16민족상 (국방부·문교부·문화공보부 후원)	1967.7.12. ~8.31.	경북공미술관	55점	- 고조선 건국, 독립운동, 광복, 4.19의거,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
민족기록화 (경제편) 전시회	문화공보부	1974.3.14. ~3.26.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30점	-광공업, 기계, 원자력 등 대표적 산업시설
민족기록화 (전승편·경제편) 전시회	문화공보부	1975.8.12. ~8.26.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40점 (전승편 20점· 경제편 20점)	-고구려~독립운동에 이르는戰史 -건설, 화학공업, 새마을 운동 등 근대화
민족기록화 (구국위업편) 전시회	문화공보부	1976.11.27. ~12.12.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점	-삼국시대~일제강점기 주요 인물의 국난극복 행적

과 결과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 절에서는 1970년대 민족기록화 제작이 국가중흥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1967년 민족기록화 전시의 배경과 취지를 살펴본 후 제작 과정과 개최 현황, 개최 후 미술계의 반응 등 전시회 경과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도록 하겠다.<sup>14</sup>

1979)에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1977년 김태의 〈황룡사의 조영〉 등 5점, 1978년 김창락의 〈울주반구대 암각도〉 등 4점, 1979년 이종상의 〈김대성과 석굴암〉 등 5점. ‘문화편’이 그려진 1977~79년은 민족기록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저조해진 시기로, 아마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전시회 개최가 자연히 무산된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14 1970년대 이전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산한 공문서가 보존기간이 지나 대부분 폐기 처분됨에 따라 1967년 첫 민족기록화 제작과 전시에 관한 상세한 정황을 알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립 후 생산된 기록화 제작과 전시 관련 기록물을 통해 이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필요시 관련 자료도 함께 연관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개최 취지와 배경

1967년 7월 12일 경복궁미술관에서 개막된 민족기록화전은 재단법인 5.16민족상(民族賞)이 주관하고 국방부·문교부·공보부가 후원해 그해 8월 31일까지 한 달 넘게 진행되었다(그림3). (재)5.16민족상은 5.16군사정변을 기념하고 조국의 근대화에 조력한 일꾼을 발굴해 치하한다는 명목으로 1966년 설립된 문화공보부 산하 단체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재를, 김종필이 이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학술·예술·교육·사회 등 6개 부문에 걸쳐 해마다 시상식을 거행해 왔으며, 예술 부문 수상자 명단에 김은호·박노수·박광진 등 몇몇 화가도 이름을 올렸다.<sup>15</sup>

첫 민족기록화전 개최 기간 중에는 관람객들에게 15페이지에 달하는 소란한 팸플릿(안내책자)을 배포했고 별도의 도록은 발간하지 않았다.<sup>17</sup> 책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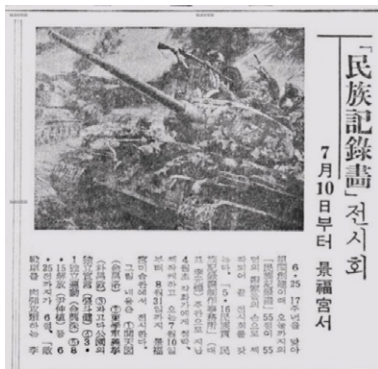


그림3-1967년 민족기록화전  
보도기사<sup>16</sup>

- 15 5.16민족상수상자 친목회(편), 『5.16民族賞』(5.16민족상수상자 친목회, 1980), 7~8쪽.  
(재)5.16민족상은 2010년대 초반까지 시상식을 개최하며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후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은 거의 멈춘 상태이다.
- 16 「民族記錄畫 전시회」, 《조선일보》, 1967년 6월 25일.
- 17 이 당시 전시회를 보도한 기사에는 개막일이 7월 10일로 써 있는 반면, 전시팸플릿에는 7월 12일로 되어 있어 날짜가 서로 불일치한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개막식 사진이 7월 12일에 촬영된 것을 보면 실제로 전시회는 7월 12일에 개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민족기록화전 팸플릿 표지, 196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관화가 인쇄된 현대적 느낌이 물씬 나는 표지에 내지에는 불상의 옆모습, 산화(散華)한 동료 장병을 추모하는 군인을 그린 연필드로잉, 조선궁궐의 잡상(雜像), 한옥의 창살, 캔버스의 뒷모습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군데군데 배치해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듯한 독특한 구성으로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후반부에 지도위원과 참여 작가의 간략한 약력, 작품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1967년 당시 작가와 작품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그림4).

책자 전반부에는 민족기록화 제작과 전시의 취지를 담은 안내문과 이어서 4명의 주요 인사들인 대통령 박정희의 기념사, (재)5.16민족상 이사장 김중필의 축사, 기록화제작사무소장 이원엽의 개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위원으로 참여한 화가 이종우(李鍾禹, 1899~1981)의 글이 실려 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라는 신분 외 5.16재단 총재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단 주관 행사에 그의 기념사를 실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다. 민족기록화전의 직접적인 개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팸플릿에 수록된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6.25동란 제17주년을 맞이하여 조국 창건 이래 오늘날까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先烈)들의 위업(偉業)이나 민족수난의 위기에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구국전승(救國戰勝)의 기록 및 장렬하게 산화(散華)하여 온거레와 국군장병의 귀감이 된 호국용사, 그리고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로 원정하여 국위를 선양한 국군용사들의 위업과 그 정신을 후손만대에 보존계승하여 민족적 긍지를 앙양(昂揚)함에 있음.

이 개최 취지는 민족기록화 제작과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6.25전쟁 제17주년이었으며, 주된 주제는 역대 전쟁에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장렬하게 희생한 선조들의 귀감이 되는 행적과 국위선양으로 국한했고 이를 통해 후손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기르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전시회를 주관한 곳은 (재)5.16민족상이었지만 전시회를 후원한 국방부, 문교부, 문공부의 각 부처별 성격에 맞는 내용이 전시 취지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팸플릿에 수록된 인사말 중 김종필의 축사는 민족기록화 전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본전람회를 기점(起點)으로 생동(生動)하는 화면(畫面)을 통(通)해 민족사(民族史)를 기록해 나아갈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민(國民)이 소장(所藏)하고 있는 귀중(貴重)한 미술품(美術品)을 진열(陳列)할 수 있는 웅장(雄壯)한 현대식(現代式) 기념관(記念館)도 건립(建立)코저 합니다.”라고 하여 민족기록화전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록화 제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으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현대식 기념관 건립을 희망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당시 미술계에서 고고유물 중심의 박물관에서 벗어나 근현대 미술품을 전시



하는 전문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이 주된 화두였다는 사실에 비추어,<sup>18</sup> 동시대 미술품을 전시한 민족기록화전이 경북궁미술관을 거쳐 1969년에 개관한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전시 장소가 이동했다는 점에서 당시 우리나라 근현대미술 전시관의 역사와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기록화 전시는 6.25전쟁 17주년을 기념해 민족의 고난과 전쟁의 상흔,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기획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제작을 통해 현대미술을 전시하기 위한 기념관(미술관)을 마련하는 데도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sup>19</sup>

한편, 김종필과 함께 기록화 제작사업에 참여한 이원엽이 전시팸플릿에서 “민족적 큰 사실들을 기록화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은 뜻있는 인사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 김종필 5.16민족상 이사장의 발안(發案)과 적극적인 뒷받침 아래 이 거대한 민족적 사업은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어…”라고 한 바와 같이, 민족기록화의 첫 제작에 김종필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배경을 차지한다. 그는 민족기록화 제작을 추진하기 전, 1964년 애국선열조상사업을 통해 광화문 거리에 을지문덕, 김구 등 역사인물 37인의 동상을 제작했으나 조악한 수준에 석고상이 깨져 1966년에 다시 시도했지만 미술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sup>20</sup> 그만큼 김종필은 시각이미지를 이용해 대규모 역사기념물을 제작하는 일에 관심이

18 김연재,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 경북궁 시기(1969~1973) 이전 상황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집』 10(2018), 97~112쪽.

19 김종필은 자신이 말한 ‘현대식 기념관’이 어떠한 전시관을 의미하는지 뚜렷한 구상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1970년대에 ‘민족박물관’을 건립해 민족기록화를 전문적으로 전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의 기념관 건립 의지는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박물관은 한 때 건립이 적극 추진되기도 했으나,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학계나 사회적인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결국 계획이 무산되었다.

20 김종필, 『김종필 증언록』(서울: 와이즈베리, 2016), 332쪽.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평론가들의 비판이 많았던 ‘동상’에서 매체를 ‘회화’로 돌렸고 민족기록화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평소 칼럼을 통해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를 즐겨했던 김종필은 민족기록화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그림에 담긴 자신의 역사관과 정치사상에 관한 여러 편의 글을 발표했고 옛 유물이나 전통문화를 중요시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민족사를 그린 기록화에 대한 신념 또한 뚜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1</sup> 그는 평소 존경한 영국 수상 처칠(W. Churchill, 1874~1965)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음악과 미술 애호가이자 아마추어 화가로서 그림의 속성과 화가들의 생활상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민족기록화 제작을 시작한 것에 관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경제적으로 힘든 화가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한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화가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국영기업이나 은행에 국전 입선 작품을 구입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sup>22</sup> 1970년대 초반 문공부장관을 역임한 윤주영, 문공부 기획실장을 지낸 김동호 등 주변인들 역시 그가 순전히 그림에 대한 개인적 취향의 발로이자 미술인들을 돕기 위한 방도를 구하고자 민족기록화라는 대상을 정책사업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술회한 바 있다.<sup>23</sup> 이러한 측면은 민족기록화 사업이

---

21 김종필은 자신이 골동품이나 조선시대 서화를 모으기를 즐겨한 이유에 대해 작품 하나하나에 우리 선인들이 간직했던 각양각색의 민족의 마음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정치와 예술은 天心과 畫心으로 속성이 비슷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종필, 「遺墨有感」, 김종필, 『J.P. 칼럼』(서울: 서문당, 1971a), 24~25쪽; 김종필, 「그림에 담긴 나의 정치 철학」, 앞의 책(2016), 308~313쪽.

22 김종필, 위의 책(2016), 317쪽.

23 「김종필(前 국무총리) 인터뷰」, 정갑영, 앞의 책(2017), 184쪽; 「김동호(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이사장) 인터뷰」, 정갑영, 앞의 책(2017), 205쪽; 「윤주영(前 문화공보부 장관) 인터뷰」, 정갑영, 앞의 책(2017), 211~212쪽. 김종필이 민족기록화를 착안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본인이 회고록에서 밝혔듯이, 1963년 잠시 정계를 떠나 아시아, 중동, 유럽 등지를 여



처음 시작될 당시 오로지 정치적 선전물이나 기념물 제작 목적이 아닌 다양한 의도와 입장이 잠재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김중필은 1968년 정치권의 갈등 양상이었던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제도권에서 물러나면서 한동안 민족기록화 제작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1971년 국무총리가 되어 정계에 복귀해 민족기록화 제작을 문화공보부에 일임함으로써 정부 주도로 제작이 지속되기는 했으나, 새마을운동과 베트남전, 산업근대화 등 정부의 치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데 활용되면서 미술계와 사회적 비판을 동반하게 되었다.<sup>24</sup>

## 2. 제작 일정과 전시회 준비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기록화 55점은 1967년 7월 12일 경복궁 내 복층 콘크리트 전시관에서 대중들에게 처음 선보였다(그림5, 그림6). 전시 장소인 경복궁미술관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조선총독부미술관으로 건립되었고, 광복 후에는 국전(國展) 등 국가나 언론사 주최 현대미술 기획전을 주로 개최하는 전시관으로 이용되던 곳이었다. 경복궁미술관은 1969년 국립현대미

---

행할 때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성(城)의 중앙홀에 걸린 역사화를 보고 영감을 받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때 그가 본 그림은 영국화가 리처드 안스텔(Richard Ansdell, 1815~1885)이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스코틀랜드 기마대 찰스 아워트(Charles Ewart) 상사가 나폴레옹 황제의 깃발을 빼앗는 장면을 그린 대형 유화작품으로,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인들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 24 1973년 8월 문화공보부가 작성한 「戰勝기록화 제작계획」에 따르면, 1973~197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0점씩 모두 100점을 만들기로 했으며, 1973년에는 名將의 전승기록, 1974년에는 선열의 위업, 1975년에는 聖君, 名賢의 치적, 1976년에는 선현들의 학술 및 예술업적, 1977년에는 기타 역사적 사건을 그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원칙은 사라지고 제3공화국의 경제발전상을 담은 경제편부터 제작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명환, 「3공때 제작한 민족기록화 창고에서 무더기로 썩고 있다」, 《주간조선》, 1990년 1119호, 68~72쪽 참조.



술관이 덕수궁에 정식으로 개관하자 폐관되었기 때문에 민족기록화 전시는 1970년대부터 이곳에서 줄곧 개최되었다.<sup>25</sup> 아울러 작품 크기가 500~1000호에 이르는 대작이다 보니, 벽면에 고정하지 못하고 바닥에 정방형의 큰 돌을 좌우에 괴이고 약간 비스듬하게 그림을 세워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당시 전시된 작품을 찍은 사진을 보면 액자의 위가 좁고 아래로 갈수록 약간 좌우로 벌어진 마름모꼴 형태를 보여준다(그림7).

전시를 추진한 (재)5.16민족상은 6.25전쟁 기념일 전까지 55점을 모두 완성해 대대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그해 2월부터 작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제작을 독려했다. 이때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과를 기록한 공문서



그림5-경복궁미술관 전경



그림6-민족기록화 전시회에서 윤중식의 <8.15해방>을 관람 중인 관객들, 1967, 경복궁미술관

25 국립현대미술관(편), 『국립현대미술관 1969-2022』(과천: 국립현대미술관, 2023), 42~43쪽.



나 화가들의 체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술채록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김종필이 《중앙일보》에 연재한 회고록인 「笑而不答」(후에 『김종필 증언록』으로 출간)과 화가이자 평론가 박영남이 쓴 「민족기록화 10년의 채점표」(1979), 그 밖에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sup>26</sup> 여기에 따르면, 김종필이 1966년 조국수호를 위한 전쟁기록을 화폭에 담기 위해 화단(畵壇)에 민족기록화를 그릴 것을 제안해 화가 정창섭과 조각가 김세중을 만나 구체화했고 민족기록화제작발족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듬해 서울 중구 태평로에 기록화제작사무소를 설치하고 이원엽이 소장을 맡아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화단의 원로들인 이종우·이병규·이마동·김인승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제작을 의뢰할 화가들 5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한다.<sup>27</sup> 작가들은 대부분 국전(國展)에서 입상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선정되었고, 지도위원들은 모두 동경미술대학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평소 추구한 작품세계가 구상을 추구한 작가들도 있었지만 정창섭처럼 추상화를 그린 화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재료에 있어서는 당시 한국에서 생산한 물감은 품질이 낮아 쓸 수 없어서 일본에서 캔버스와 물감 등 3톤이 넘는 막대한 미술 재료를 구입해 와 화가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준 일화도 김종필의 회고록을 통해 알려졌다.<sup>28</sup> 이를

26 김종필, 앞의 책(2016); 윤정김종필기념사업회(편), 『윤정 김종필: 한국 현대사의 증인 JP 화보집』(서울: 중앙일보, 2015); 박영남, 「민족기록화 10년의 채점표」, 《계간미술》, 1979년 가을호, 167~175쪽; 「日曜畵家會 발족, 종로미술연구소 內」, 《경향신문》, 1965년 3월 8일; 「超大型記錄畵 제작」, 《동아일보》, 1967년 5월 20일 등.

27 화가 선정은 김세중과 정창섭이 주로 추진하다 보니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원로가 제외되고 무명 작가들이 선정된 점, 사실적인 기법이 요구되는 작업임에도 추상화가들이 대거 추천된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이원엽 소장의 중재로 구상화가와 추상화가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방근택, 「미술행정의 난맥상: 졸속·편파·즉흥적인 '공공미술'의 제작」, 《신동아》, 1967년 6월호, 215쪽.

28 김종필, 앞의 책(2016), 332~3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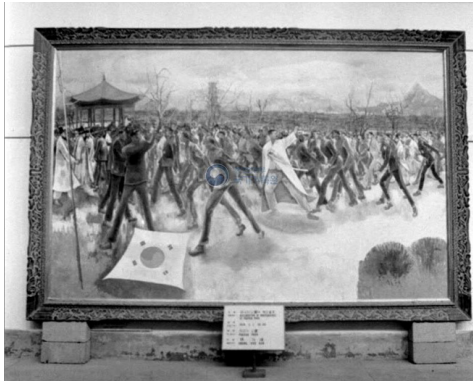


그림7- 장두건, 〈파고다공원에서 33인의 독립선언〉, 1967, 경북공미술관 전시 모습

통해 보면 당시 기록화 제작이 실현되는 데 김종필과 이원엽 두 사람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원엽은 김종필과 마찬가지로 군 출신이자 정치인으로, 그와 더불어 일요화가회에서 활동하며 개인전을 개최하고 인사동에 개인 화실을 마련하는 등 전문 창작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sup>29</sup>

1967년 민족기록화 제작 과정과 전시회 준비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 알려주는 자료는 기록화제작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화제작계획표」이다(표2). 이 계획표는 1967년 민족기록화 제작 과정에 대해 재료 구입과 작가 섭외, 작품 구상, 초본과 원화 제작, 액자틀 제작, 전시 준비, 그리고 개관에 이르기까지 전체 일정을 시간순으로 보여준다.<sup>30</sup> 그러나 어디까지나 계획이었던 만큼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업이 늦어져 전시회 개막은 원래 예상보다 약 10일이 늦은 7월 12일에 이루어졌다.

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월 말~3월 말 한 달 동안은 재료 구입과 작가 섭외, 제작 장소 물색, 작가 섭외 후 밑그림을 구상하는 기간이었다. 55점에 달하는 많은 작품 수로 인해 액자틀 제작은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29 「李元燁 日曜畫家會 고문 仁寺洞에 個人畫室 마련」, 《경향신문》, 1983년 3월 13일.

30 「記錄畫制作計劃表」(1967, 국가기록원 소장, 등록번호 CET0057651). 자료의 촬영 일자 1967년 5월 11일이다. 이 자료는 조기쁨, 앞의 논문(2019), 37쪽에서도 간략히 언급되었다.



표2-1967년 민족기록화 제작 및 전시회 준비 기간

구분	작업 기간	소요 기간	비고
재료 구입	2.25~3.07	11일	김종필이 일본에서 조달
동원 작가 교섭	2.25~3.20	24일	작품 의뢰 대상 작가 타진
제작 장소 물색	2.28~3.25	26일	중앙청 등지로 추정
하도(下圖) 구상	2.28~3.31	32일	밑그림(초본, eskiz)
재료 분배	3.25~3.31 4.10~4.15	총 12일	캔버스, 오일, 물감 등 畵具
자료 수집 및 배포	3.20~3.31	11일	작품 주제 관련 참고자료
하도(下圖) 제작	4.1~4.15	15일	밑그림 제작
액자 틀 주문	2.28~4.10	42일	
원화(原畵) 제작	4.1~5.31	60일	최종 작품 완료
초청장 준비 및 발송	5.20~5.31	11일	
작화(作畵) 수집	6.5~6.15	10일	완성된 작품 수거
PR	6.5~6.20	15일	홍보
전시 준비	6.10~6.25	15일	
개장(開場)	6.25~6.30	5일	- 전시 개막 - 6월 25일이 개관 목표였으나 실제로는 10일 정도 지연됨

착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2월에 주문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그림 크기와 해당 제작 수량이 이미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월 하순부터는 일본에서 공수한 화구(畵具)와 재료를 분배했고, 그림을 그리는 데 참고할 자료를 작가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4~5월 두 달 동안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 완성하면 6월에는 완성품을 수거하고, 초청장 발송, 홍보, 전시를 진행해 6월 말에는 전시를 개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이처럼 6.25전쟁 17주년에 맞춰 전시를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총 작업기간이 겨우 4개월이 조금 넘었을 정도로 매우 빠듯하게 설계되었다. 특히 원화 제작 기간이 두 달밖에 편성되지 않아 화가가 충분히 주제를 소화해





그림8-〈대지공격하는 F51편대〉를  
제작 중인 안재후, 1967,  
국가기록원 제공

완성도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가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촉박한 일정은 결국 작품의 수준 저하로 이어져 미술계에서 고종 여부나 표현 방식을 두고 혹평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일정이 촉박했는데도 화가들은 기록화제작소에서 마련해 준 별도의 장소에서 500~1000호에 달하는 큰 화면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sup>32</sup> 작업 도중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마치 증행사진처럼 자신들의 그림 앞에 서서 의도적으로 찍은 모습이 대부분이지만, 그림의 규모와 더불어 한창 제작 중인 단계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그림8). 즉, 대형 화면에 그리기 전 소재나 구도를 잡기 위해 그린 작은 화폭의 초본(에스키즈)을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기존의 풍경이나 인물사진을 보고 그리는데 장면도 있으며, 무엇보다 원래 그렸던 그림과 최종 완성본이 달라진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이를테면 천칠봉(千七峰, 1920-1984)은 〈국립묘지〉를 그리면서 처음에는 묘비가 늘어선 전경에 군인 두 명이 묵념을 하고 있는 모습

31 방근택, 「아쉬운 爲政者の 藝術識見」, 《동아일보》, 1967년 7월 20일.

32 그림을 그린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언급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규격화된 넓은 사무실 분위기인 것으로 보아 기관에서 마련해 준 장소인 듯하다. 1950년대부터 국가가 주도한 대형 그림을 제작할 때에는 중앙청이 종종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1967년 기록화도 자신의 화실을 이용한 몇몇 화가를 제외하고 대형 화폭의 작품은 중앙청을 비롯해 주최측에서 준비한 별도의 장소에서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9-천칠봉, 〈국립묘지〉,  
1967, 국가기록원 제공



그림10-천칠봉, 〈국립묘지〉,  
1967, 캔버스에 유화, 500호,  
소장처 미상

을 포함시켰으나, 최종적으로는 군인을 지우고 해병이 나팔을 불며 추모하는 장면으로 완성했다(그림9, 그림10). 이러한 예는 짧은 제작 기간 동안 주제를 소화해야 했던 화가들이 직면했던 고민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시회 개최 당일까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해 현장에 와서 그림을 수정하기도 했다는 후일담은 첫 민족기록화 제작사업이 지녔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sup>33</sup>

33 김명환, 앞의 글(1990), 71쪽.



### Ⅲ. 1967년 민족기록화전의 출품작과 작품의 행방

---

#### 1. 출품작의 현황과 주제

첫 민족기록화 전시회는 팸플릿에 소개된 바와 같이 조국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의 위업,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구국 위업, 장렬하게 산화한 국군장병, 귀감이 된 순국용사,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한 병사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총 55점을 대량 제작해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과 민족적 의지를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당시 제작된 기록화는 오늘날 실제 작품이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복궁미술관에서의 전시 당시 촬영한 일부 흑백사진에 의존해 전체 작품의 경향을 추정해 왔었다. 지금까지 실물이 확인된 작품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윤중식(尹中植, 1913~2012)의 〈8.15해방〉과 김서봉(金瑞鳳, 1930~2005)의 〈구월산지구 유격대〉 단 두 점에 불과하다(그림11, 그림12).<sup>34</sup> 이 두 작품은 민족기록화 제작사업 첫 결과물이자 전시에 출품된 실물로서, 그림의 내용뿐 아니라 크기와 재료, 액자표구 등 1967년 당시 제작된 그림의 내외적인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1967년 기록화 엽서 사진 51점을 통해 작품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그밖에 이춘기의 〈비둘기부대의 건설공사〉와 최덕휴의 〈베트공을 소탕하는 맹호용사〉 두 점은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화 제작 상황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직순의 〈도

---

34 두 작품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당에 걸려 있으며, 모두 1979년 감사원에서 기증한 작품이다. 두 작품의 소장경위 확인에 도움을 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무회계팀에 감사 드린다. 김서봉의 〈구월산지구 유격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번 호에 실린 강민기의 논문을 참조 바란다.





그림11-윤중식, 〈8.15해방〉,  
1967, 캔버스에 유화, 10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그림12-김서봉, 〈구월산지구  
유격대〉, 1967, 캔버스에 유화,  
100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솔산의 격전〉, 박상옥의 〈혁명군의 한강도하〉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총 55점 중 53점이 사진이나 실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이 글의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했다.

〈부록〉을 보면 그림 역시 민족기록화전 취지에 맞게 제작되었다. 한반도의 시작을 상징하는 그림은 김창락(金昌洛, 1924~1989)의 〈개천도(開天圖)〉로 대표되고, 순국선열의 위업은 학도의용군, 독립선언, 3.1만세운동, 신탁통치반대사위 등의 주제가 해당된다.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구국위업의 주제로는 주로 6.25전쟁 소재가 그려졌고, 위국용사는 희생정신을 보여준 군인들, 그리고 해외에서 선양한 용사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주로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제작되었다. 이 55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6.25전쟁에 관한 것으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9점이 그려졌고, 시대적으로도 고종 세보다는 현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듯 최초의 민족기록화 전시회는 한국사 전반에 걸친 민족의 위업과 전승을 모두 다룬 것이 아니라 6.25전쟁을 주된 주제로 하면서 기타 주제가 첨가되어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사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군(檀君)의 고조선 건국에서 시작해 구한말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광복, 신탁통치 반대 시위, 6.25전쟁, 4.19학생의거, 5.16군사정변, 베트남전 참전, 미국 대통령 방한, 국립묘지 장면으로 마무리되면서 시간순으로 주요 사건을 배치해 마치 고대~현대에 이르는 한국사를 한눈에 보듯이 구성되었다. 특히 박정희 정부 탄생의 중요한 계기가 된 4.19의거를 반복적으로 그렸고 6.25전쟁의 경우 사건 발발 시기를 조밀하게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 중요하게 판단한 사건은 안배에 신경을 쓴 인상을 준다.

이러한 작품 주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선정했고 문공부, 문교부, 국방부가 지원한 방식이었다고 한다.<sup>35</sup> 전쟁 주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배경에는 첫 기록화 전시가 6.25전쟁 17주년에 맞춰 개관된 것도 한 가지 이유이었으나 그보다 1960년대가 여전히 반공을 내세운 냉전시기였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민족기록화는 국가 입장에서는 선전용이었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화 목적도 중요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면을 통해 애국심과 공산주에 대한 적개심을 자연스럽게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한다.<sup>36</sup>

한편, 동학농민의거, 파고다공원 독립선언, 4.19의거 등처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과 달리 6.25전쟁 주제를 보면 전투의 소재가 매우 구체적이고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국군의 다양한 활약상을 골고루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 6.25전쟁에 대한 사적(史的) 정리라

35 박영남, 앞의 글(1979), 168쪽.

36 조은정, 「회화자료를 통해 본 6.25전쟁」, 『군사연구』 130(2010), 35쪽.



든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되며, 1967년에는 전시회를 후원한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종합적인 전사(戰史) 편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당시 6.25전쟁을 정사(正史)로 다듬는 최초의 시도였던 이 편찬사업은 광복을 전후로 한 국내외 정세와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과 6.25전쟁까지 상세한 내용을 수록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국방부가 민족기록화 주제 선정과 제작을 위해 전사(戰史)를 편찬하면서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sup>37</sup> 〈부록〉에 제시된 작품 중 〈L~4형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초창기의 공군〉(곽훈), 〈모란봉에 돌입하는 1사단 용사〉(김숙진)처럼 오늘날 생소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 소재나 전쟁영웅 그림이 수록된 것은 당시 전쟁사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재와 내용도 다양하게 발굴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67년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6.25전쟁 정리 작업은 1970년 『한국전쟁사(韓國戰爭史)』라는 제목으로 총 3권의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sup>38</sup> 흥미로운 점은 1967년도 민족기록화전에 출품된 6.25전쟁 주제는 육해공군의 활약상과 더불어 음성지구 전투, 낙동강전선 방어전투, 통영지구 전투, 인천상륙작전, 압록강지구 전투, 승호리철교폭파작전, 백마고지 쟁탈 등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투가 많은데 이들 전투의 구체적인 경과와 생존자들의 증언, 군사지도, 사진 등이 『한국전쟁사』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종군사진가들이 촬영한 생생한 격전지의 모습과 무기나 전차, 가옥, 인물 사진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전쟁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데 참조했을 법한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 역시 주목해 볼 사안이

37 「民族記錄畫 전시회」, 《조선일보》, 1967년 6월 25일; 「記錄畫 만든다」, 《경향신문》, 1967년 4월 3일.

3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편), 『韓國戰爭史 1~3』(서울: 서울인쇄주식회사, 1970).





라고 하겠다(그림13). 그중 『한국전쟁사』에 실린 신탁통치반대 시위 사진의 경우, 이정훈이 그린 〈신탁통치반대〉와 비교하면 인물들의 방향과 구호물을 든 장면, 중앙에 중절모를 쓴 노인의 모습 등이 서로 유사해 그가 이 사진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림14, 그림15).

물론 그가 이 책에 실린 사진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구했을 수도 있으나, 앞서 본 「기록화제작계획표」에 따르면(표2), 제작을 위한 자료가 별도로 제공되었고 국방부가 『한국전쟁사』 편찬을 준비하면서 많은 현장 사진을 수집한 사실에 비추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화가들이 전투 장면 고증을 위해 관련된 자료를 참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쟁사 주제가 아니더라도 작가들이 짧은 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진 자료

39 왼쪽은 권1에 수록된 각종 전투 장면이며, 오른쪽은 권3에 수록된 공군기 비행 모습이다.





그림14-이경훈, 〈신탁통치반대〉, 유화, 1967, 소장처 미상



그림15-국방부 편찬 『한국전쟁사 3』에 수록된 신탁통치반대 시위 장면

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sup>40</sup> 실제로 1967년 민족기록화 중에는 〈서울시가전〉(김영주), 〈원산시민의 국군환영〉(장성순), 〈대통령철교를 건너는 평양피난민〉(박항섭), 〈박정희 장군의 혁명군 지휘〉(김인승), 〈박대통령방미〉(박득순) 등 신문지상에 공개된 사진이나 별도 촬영한 사진을 참조한 사례가 여럿 있으며, 대부분 사진을 참조해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동(李馬銅, 1906~1980)의 〈백학부대의 수송작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사진을 그대로 옮기고 채색만 첨가한 예도 있다(그림 16, 그림17). 이러한 예는 민족기록화가 실재를 바탕으로 한 그림으로서 작가적 상상력에 제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화가들이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을 작품화하는 데 사진이 가장 정확한 사실과 고증을 전달해 주는 자료였기 때문에 자연히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그린 작품은 대부분 사실적인 필치를 바탕으로 근경(近景)에 사건의 주인공들을 가까이 밀착해 배치하고 화면 상단에는 아득한 원경(遠景)을

40 이러한 점은 박혜성과 조기쁨의 논문에서도 지적되었다.





그림16-이마동, 〈백마부대의 수송작전〉, 1967, 캔버스에 유화, 500호, 소장처 미상



그림17-〈메콩강을 누비며 군수물자를 戰地로 수송하는 駐越 백마부대 함정〉 사진, 《경향신문》 아카이브

배경으로 그려 넣은 유사한 구도를 채택했으며, 현실적이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다양한 인물군상의 행동을 강조하거나 과장해 그린 것이 특징이다. 화가들이 전쟁화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음에도 그릴 수 있었던 배경은 이수억(李壽億, 1918~1990)의 〈야전도(夜戰圖)〉처럼 6.25전쟁 때 종군 화가로 참전했던 화가들이 남긴 작품들의 전통이 있었고(그림18), 여기에 일 제강점기부터 태평양전쟁을 그린 일본의 전쟁화가 국내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장렬공수단 이원등 상사〉(양인옥), 〈승호리철교 폭파작전〉(이봉렬)에서 보이는 고공낙하라든지 전투기 폭파 장면 등은 일본 전쟁화와 구도와 표현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자료들을 참조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sup>41</sup> 그림에도 작가들에게는 자신들이 실제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대형 캔

41 1967년 제작 민족기록화와 일본 전쟁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기쁨, 앞의 논문(2019), 37~56쪽 참조.





그림18-이수역, 〈야전도〉,  
1953, 소장처 미상

버스에 그린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기록화자문위원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그동안 한국화단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군상(群像) 위주의 구도와 기록이나 사진을 참고해 상상력을 가미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추상화가임에도 사실적인 구상화를 그려야 한다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려 낸 작품들은 몰개성적이고 예술성이 결여된 작품으로 호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작품의 행방과도 연관 있다고 생각되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작품의 행방과 당대의 평가

1967년 처음으로 제작된 총 55점의 민족기록화 중 윤중식의 〈8.15해방〉과 김서봉의 〈구월산지구 유격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53점의 행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첫 민족기록화 제작을 정부기관이 아닌 (재)5.16민족상에서 임시로 설치한 기록화제작사무소에서 추진하다 보니 관련 문서 정리나 사후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가능성을 첫번째로 들 수 있다. 〈8.15해방〉과 〈구월산지구 유격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기 전 감사원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참작하면,



전국의 각 기관에 위탁보관되다 어느 시기에 산일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관리한 104점의 대상에서 누락되다 보니 관심에서 멀어져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부실한 관리 문제는 전시 개최 후 약 10년이 흐른 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기록화 제작의 마지막 해인 1979년을 기점으로 평론가들은 민족기록화 제작의 공과(功過)를 살피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작품의 실소재지와 관리 실태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sup>42</sup> 이러한 문제는 평론가들만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제작에 참여한 박광진 역시 “모두 국가적인 기록물들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아쉽다.”라고 했고 제작을 추진한 김종필조차 다음과 같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때 그려진 기록화들은 중앙청 복도와 청와대 본관 벽에 걸려 전시되었다. 이 기록화들은 1980년대 들어 박물관으로 바뀐 중앙청 벽에서 떼어져 지하창고에 보관되었다. 그 후 1995년 중앙청 건물이 철거되었고 지금은 그 작품들 대부분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다. 활자에 갇힌 역사를 화폭에 펼쳐 낸 의미 있는 작업들이 사장(死藏)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sup>43</sup>

---

42 박영남, 앞의 글(1979), 173쪽. 1967년 민족기록화의 행방에 대한 궁금증은 작가의 유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살신성인 이인호 소령〉을 그린 김형구의 유족들 역시 작품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래도록 수소문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형구 ‘작품·아카이브’ 기증展 개최」, 《뉴시스》, 2017년 12월 6일. 최근 언론에서도 민족기록화의 행방에 대해 관심있게 보도한 바 있다. 「엄청 유명한 화가가 그렸네? 누가 그렸는지 몰랐던 교과서 그림 ‘민족기록화’ 지금은 어디에」, 《중앙선데이》, 2024년 3월 17일 기사 참조.

43 김종필, 앞의 책(2016), 333쪽.





그림19-중앙청 복도에 걸려 있었던 1970년대 제작 민족기록화, 1980년대 촬영, 국가기록원 제공

이 인용문에서 김종필은 1967년 작품과 70년대 작품을 혼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가 말한 작품은 1970년대 그려진 그림을 의미한다. 그의 말대로 1970년대 민족기록화(경제편)는 중앙청 복도와 집무실에 걸려 있었다(그림 19). 1995년 중앙청이 철거된 후 1970년대 그려진 104점의 대부분은 현재 전쟁기념관, 새마을운동중앙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지에 분산되어 소장되어 있다.

(재)5.16민족상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한 첫 민족기록화가 실체도 없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행방조차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당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을 주관한 5.16민족상 재단의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은 작품들의 보관이나 관리에 전혀 무관심했다고 하며 애써 외면해 왔다고 한다.<sup>44</sup> 이러한 외면 뒤에는 사회적인 주목을 회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 미술비평가들이 혹독한 평가를 내린 것 또한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물론 전시회가 개관하고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는 대규모의 역사적인 전시회를 개최한 것에 대

44 박영남, 앞의 글(1979), 168쪽.



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심지어 20대의 젊은 화가부터 노대가(老大家)에 이르기까지 화가들 각자가 민족사의 주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느라 고심하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며 이를 통해 잊혔던 역사의 나날을 실감케 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극찬하기도 했다.<sup>45</sup>

그러나 이러한 상찬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획 의도와 작품 수준에 대한 미술계의 질타는 전시회 개최 기간 중 나타났다. 평론가들은 정부 주도의 예술품 제작에 회의를 표방하거나 고증 부족으로 인한 사실성 결핍, 시대착오적인 표현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sup>46</sup> 심지어 이러한 비판은 평론가와 화가들의 갈등으로 이어져 서로 비방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정도였고 작업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부각되는 상황에 이르렀다.<sup>47</sup>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주최측 입장에서는 한 번 대중에게 공개하고 질타를 받은 작품들을 계속 홍보하거나 선양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1980년에 들어와 작품 원화(原畵)를 정부 부처, 공공기관, 군(軍), 전국의 문화원, 국민교육시설 등지에 대여하고 국민에게는 엽서나 우편으로 간행하거나 교과서에 수록해 보급하는 등 ‘전시’보다는 ‘교육’에 더 활발하게 활용된 것도 민족기록화를 예술작품으로서보다는 사진을 대신한 시각대체물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즉, 정치미술로 너무 폄하되다 보니 미술품으로서 가치가 잊히고 보존 관리의 필요성도 희미해진 듯하다. 이처럼 첫 민족기록화 제작사업의 결과물로서 의의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

45 「살아난 잊혀진 歷史」, 《경향신문》, 1967년 7월 15일.

46 박혜성, 앞의 논문(2003), 40쪽.

47 「民族記錄畵展의 不美스런 뒷사건」, 《경향신문》, 1967년 8월 28일; 「超大型記錄畵 제작」, 《동아일보》, 1967년 5월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당시 화가들은 착수금조로 5만 원을 먼저 지급받았으며 완성 후 나머지 제작비인 15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듯, 미술평론가 방근택을 비롯해 몇몇 기자는 주최측이 화가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후 1970년대까지 기록화 제작이 꾸준히 이루어진 만큼 일각에서는 이 그림들을 문화적 유산으로 인지하고 사실성과 기록성 모두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예술의 가치를 방기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 속에서 찾아야 할 명분이 망각된 채 지금은 대다수 현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sup>48</sup>

#### IV. 1967년 민족기록화전의 성격과 의의

---

1967년 7월 경복궁미술관에서 열린 첫 민족기록화전은 작품의 규모와 수량 면에서 기념비적인 전시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김종필이나 이원엽처럼 사회적 인지도가 높았던 실세 정치가이자 위정자들이 주도하여 주제와 작가 선정에 개입한 결과 독립운동이나 전쟁사 주제가 다수 차지해 애국심과 반공정신을 고취하고자 한 목적으로 해석되었고, 더욱이 박정희 정부의 5.16군사정변이나 대미 외교, 베트남전 치적을 그린 그림도 포함되어 있어 정권 선전용이자 국민교화용 그림을 홍보한 전시로서 평가가 굳어진 것도 사실이다. 민족기록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희미해진 요인이 되었고 1976년 개최된 민족기록화전-구국위업편 이후에는 국가 주도의 이렇다 할 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1967년 민족기록화전은 당시 화단의 경향과 화가들의 입장에서 보

---

48 필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조로 1970~1980년대 민족기록화 제작 및 대여 관련 공문서철을 확인해 보았으나, 1967년 작품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1967년 작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전시회 개최 후 외부로 실물을 공개하거나 대여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면 몇 가지 변화와 실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먼저 우리나라 화단에 역사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그 결과 전쟁화가 본격적으로 그려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민족기록화 제작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고대~현대에 이르는 역대 주요 전투에 대한 연구와 작품 제작으로 이어진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첫 민족기록화 전시를 준비하면서 화가들은 이전에 잘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화면이나 군상화(群像畵)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비판 속에서 참여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화가들도 있었지만, 박창돈(朴昌敦, 후에 朴敦으로 개명, 1928~2022)처럼 실험민 출신으로 역사화라는 장르에 눈을 뜬 후 민족기록화를 전문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작가도 등장한 계기가 되는 등 화단의 변화를 이끈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sup>49</sup>

1967년 민족기록화전은 향후 정부의 기록화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첫 민족기록화 전시 이후 산업개발기록화(1970), 새마을운동 기록화(1971), 월남전기록화(1972)처럼 특정 주제별 기록화 제작이 꾸준히 추진되었고, 1973~1979년 동안에는 경제발전과 민족영웅, 국난극복, 문화사에 이르는 주제 100여 점 이상이 추가로 제작되어 수량 면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기록화 사업이 시작된 이래 추진 방법이 체계적이지 않고 고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1973년부터 고증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의 충실함을 도모하기 시작했고 지침을 만들어 추진하고자

---

49 「미술로 호국·안보 일깨운 서양화가 박창돈씨 별세」, 《세계일보》, 2022년 6월 18일. 박창돈이 민족기록화에 천착한 배경은 그의 개인적 경험과 밀접하다. 1928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6.25전쟁으로 가족과 떨어져 남한으로 피난을 온 이후 화가로 성공한 후에는 그림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에 대한 의지, 호국정신을 민족기록화로 적극 표현했다고 한다.



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침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50</sup>

- ① 문화공보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소재를 뽑아 추진위원회 자문을 얻어 회화화(繪畵化)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한다.
- ② 소재에 따라 작가를 선정하고 제작을 위촉한다. 작가와 고증위원의 연석회의를 통해 작가의 능력과 적성을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때 문공부가 제작 기간과 제작비를 작가에게 통보한다.
- ③ 고증위원회는 통상 사학자, 문화재연구소장 등으로 구성하되, 작품을 분담해 고증하게 한다.
- ④ 작품 초고를 고증위원회 자문에 의해 작성하고 전체 고증위원회에서 2~3차례 검토해 보완한다.
- ⑤ 제작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초본을 최종 검토하고 본화(本畵) 제작을 완성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1970년대 발간된 도록에는 기록화제작추진위원 및 해당 작품의 고증위원이 누구였는지 실명을 수록해 작품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1967년 민족기록화전과 관련해 당대 서양화단의 주된 경향과 관련해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는 앵포르멜(Art Informel)로 대표되는 추상화 열기 속에서 사실성을 추구한 구상화(具象畵)의 영향력이 화단에서 점점 생기를 잃어 가고 있던 시기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상화는 상대적으로 유행에 퇴보한 양식으로 인식되기

---

50 박영남, 앞의 글(1979), 171쪽.



시작했으나, 민족기록화를 계기로 사실적 기법에 입각한 구상화가 국가정책이나 대중들에게 갖는 의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식을 갖게 해 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당시 추상화가들이 사실성을 추구한 구상화 작업에 참여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sup>51</sup> 여전히 일각에서는 작품 수준에 의문을 제기한 의견이 많았으나,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실화를 추구한 민족기록화가 당대 화단에서 갖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V. 맺음말

---

이 글은 1967년 경북궁미술관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기록화 전시를 대상으로 개최 배경과 과정, 후대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박정희 정권의 선전용 그림으로 주로 인식되어 온 민족기록화를 객관화해 조명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민족기록화 전시가 처음으로 열린 1967년은 주된 관계자였던 박정희·김종필·이원엽에게 중요한 해였다. 박정희는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김종필과 이원엽 모두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해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던 시기였다. 김종필이 제안하고 이원엽이 추진한 최초의 민족기록화 제작과 대국민 전시회 개최는 제3공화국의 문화정책과 맞물려 정권의 유지와 홍보를 위한 정치수단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김종필과 이원엽 모두 작품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일요화가회를 통해 알게 된 미술계 인사들과 폭넓

---

51 「살아난 잊혀진 歷史」, 《경향신문》, 1967년 7월 15일, “현대의 美術을 高唱하던 젊은 추상화가들은 그들의 어제까지의 이론에 함구하고 사실적인 장면을 그려 냈고 사실화가들은 그들의 평소의 수법을 크게 발휘했다”.



게 교류하면서 그들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족기록화 사업에 착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시대적 분위기뿐 아니라 이들의 개인적 성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필이 이사장으로 있던 5.16민족상재단이 추진한 1967년 민족기록화 제작과 전시는 최초의 시도였던 만큼 모든 물질적 역량을 투자해 진행했고 참여 작가와 작품의 실질적 규모 역시 이후의 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시회는 표면적으로 6.25전쟁 17주년을 맞이해 기획된 만큼 총 55점 중 전쟁사 주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으며, 작품 제작을 위한 세부적인 참고자료는 당시 국방부에서 편찬을 준비 중이었던 『한국전쟁사』 수록 예정 사진 등 수집 자료에 기초했음을 새롭게 논의해 보았다. 화가들 입장에서 보면 물질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500~1000호에 이르는 대형 화폭을 처음 다루면서 작가적 역량을 키웠고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삼아 화단에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를 얻었다고 본다.

1967년 민족기록화전은 비록 두 달이라는 짧은 제작 기간으로 인해 충분한 역사적 고증과 표현 수준을 갖추지 못해 당시 미술계의 혹독한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첫 민족기록화 제작사업에서 노출된 문제를 보완하고자 자문위원회, 고증위원회를 설치해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추상화가 대세를 이룬 1960년대 화단에 구상화의 중요성과 유효함을 다시 인식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작품의 현존 여부를 비롯해 화가들의 작업 방식과 경제적 보상, 구체적인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를 보완해 나간다면, 최초의 민족기록화전이 근현대미술사에서 갖는 위상도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記錄畫制作計劃表』(1967, 국가기록원 소장, 등록번호 CET0057651).

『민족기록화 제작상황』(1967, 국가기록원 소장).

『민족기록화전(Korean Heritage Painting Exhibition) 전시팸플릿』(1967, (재)5.16민족상·국방부·문교부·공보실).

### 2. 논저

5.16민족상수상자 친목회(편), 『5.16民族賞』, 서울: 5.16민족상수상자 친목회, 1980.

5.16민족상재단(편), 『민족기록화전 1967』, 서울: 5.16민족상재단, 1967.

국립현대미술관(편), 『민족기록화 전시회(경제편)』,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74.

국립현대미술관(편), 『민족기록화전(전승편·경제편)』,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75.

국립현대미술관(편), 『민족기록화(구국위업편)』,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976.

국립현대미술관(편), 『국립현대미술관 1969-2022』,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202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편), 『韓國戰爭史 1~3』, 서울: 서울인쇄주식회사, 1970.

국방부장정훈국(편), 『민족기록화 해설: 민족의 슬기』, 서울: 국방부장정훈국, 1979.

국사편찬위원회(편), 『민족기록화집: 구국위업편』, 서울: 한국도서출판공사, 1978.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서울: 갈무리, 2006.

김연재,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 경복궁 시기(1969~1973) 이전 상황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집』 10, 2018, 97~112쪽.

김영나, 『1945년 이후 한국의 현대미술』, 서울: 미진사, 2022, 178~187쪽.

김용철·기타하라 메구미·가와타 아키히사·차이 타오·다나가 슈지·강태웅·세실 화이팅·오윤정·바이 쉬밍·워릭 헤이우드, 『전쟁과 미술: 비주얼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서울: 현실문화, 2019.

김재범, 「육군박물관 소장 민족기록화 연구」, 『학예지』 24, 2017, 47~78쪽.

김재수, 「현대 역사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30, 2011, 255~276쪽.

김종필, 『김종필 증언록』, 서울: 와이즈베리, 2016.

김종필, 『J.P. 칼럼』, 서울: 서문당, 1971a.

김종필, 『J.P. 畫帖( I )』, 서울: 서문당, 1971b.



- 김현화, 「박정희 정부의 문예증흥정책과 현대미술」, 『미술사논단』 42, 2016, 131~159쪽.
- 박영택, 「박정희 시대의 문화와 미술」,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5, 2005, 207~241쪽.
- 박정혜, 「조선시대의 역사화」, 『조형』 20, 1997, 8~36쪽.
- 박찬승,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 형성」, 『개념과 소통』 1-1, 2008, 79~120쪽.
- 박혜성, 「1960-70년대 민족기록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심정원, 「近代 日本의 歷史畵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안인기, 「박정희 시대의 민족주의와 미술의 변화에 대한 연구」, 『예술교육연구』 9-3, 2011, 33~44쪽.
- 오제연,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16, 2007, 285~324쪽.
- 윤정김종필기념사업회(편), 『윤정 김종필: 한국 현대사의 증인 JP 화보집』, 서울: 중앙일보, 2015.
- 이하나, 「1970-1980년대 ‘민족문화’ 개념의 분화와 쟁투」, 『개념과 소통』 18-18, 2016, 169~211쪽.
-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 1998, 83~106쪽.
- 정갑영, 『한국문화정책 형성과정과 김종필의 역할 연구』,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 정영목, 「한국 현대 역사화: 그 성격과 위상」, 『조형』 20, 1997, 58~78쪽.
- 정현이, 「1970년대 이후 한국미술의 내셔널리즘과 미술비평」, 『서양미술 사학회논문집』 31, 2009, 273~297쪽.
- 정형민, 「한국 근대 역사화」, 『조형』 20, 1997, 37~57쪽.
- 조기쁨, 「전쟁 주제의 민족기록화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조은정, 『권력과 미술,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 서울: 아카넷, 2009.
- 조은정, 「회화자료를 통해 본 6.25전쟁」, 『군사연구』 130, 2010, 33~68쪽.
- 채효영, 「박정희 정권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기록화 사업: 《구국위업편》, 《전승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와 예술』 7, 2010, 68~92쪽.
- 최찬욱, 『민족의 슬기』, 서울: 국방부정훈국, 1979.
- 최태만, 「한국전쟁과 미술: 선전 경험 기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최태만, 「패전 후 일본전쟁기록화 처리와 미술가의 행보」, 『기초조형학연구』 16-2, 2015, 495~507쪽.



최태만, 「현대 한국미술과 민족주의란 두 개의 얼굴」, 『미술이론과 현장』 4, 2016, 145~180쪽.

한국도서출판공사(편), 『民族記錄畫集』, 서울: 한국도서출판공사, 1979.

한국문예진흥원(편), 『민족기록화 민족사편: 전승편·구국위업편·문화편』, 서울: 한국문예진흥원, 1993.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민족기록화: 경제편』,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2.

### 3. 기타

「經濟개발 성과를 記錄」, 《매일경제》, 1973년 3월 8일.

「記錄畫 만드나」, 《경향신문》, 1967년 4월 3일.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형구 ‘작품·아카이브’ 기증展 개최」, 《뉴시스》, 2017년 12월 6일.

「미술로 호국·안보 일깨운 서양화가 박창돈씨 별세」, 《세계일보》, 2022년 6월 18일.

「民族記錄畫 전시회」, 《조선일보》, 1967년 6월 25일.

「民族記錄畫展의 不美스런 뒷사건」, 《경향신문》, 1967년 8월 28일.

「살아난 잊혀진 歷史」, 《경향신문》, 1967년 7월 15일.

「李元燁 日曜畫家會 故문 仁寺洞에 個人畫室 마련」, 《경향신문》, 1983년 3월 13일.

「日曜畫家會 발족, 종로미술연구소 內」, 《경향신문》, 1965년 3월 8일.

「超大型記錄畫 제작」, 《동아일보》, 1967년 5월 20일.

김명환, 「3공때 제작한 민족기록화 창고에서 무더기로 썩고 있다」, 《주간조선》, 1990년 1119호, 68~72쪽.

김종필, 「5.16혁명과 민족주의」, 《新思潮》 1-6, 1962, 38~47쪽.

박영남, 「민족기록화 10년의 채점표」, 《계간미술》, 1979년 가을호, 167~175쪽.

방근택, 「미술행정의 난맥상: 졸속·편파·즉흥적인 ‘공공미술’의 제작」, 《신동아》, 1967년 6월호.

방근택, 「아쉬운 爲政者의 藝術識見」, 《동아일보》, 1967년 7월 20일.

「엄청 유명한 화가가 그랬네? 누가 그랬는지 몰랐던 교과서 그림 ‘민족기록화’ 지금은 어디에」, 《중앙선데이》, 2024년 3월 17일.

아르코기록원 구술채록 자료, <https://artsarchive.arko.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Wiki, <https://dh.aks.ac.kr/Edu/wiki>.



부록-1967년 민족기록화전 출품 작가 및 작품<sup>52</sup>

연번	제목	작가 (생졸년/나이)	호수	주제 및 내용	작품	소장처
1	開天圖	김창락 (1924~ 1989) 43세	1000	단군의 고조선 건국		미상
2	東學軍義舉	박창돈 (1928~ 2022) 39세	1000	1894년 정봉준이 봉기한 동학군이 공주에서 일본군대와 항거		미상
3	파고다公園의 獨立宣言	장두건 (1918~ 2015) 49세	500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과 만세운동		미상
4	3.1獨立運動	김흥수 (1919~ 2014) 48세	1000	1919년 3월 1일 항일만세운동		미상
5	8.15解放	윤중식 (1913~ 2012) 54세	1000	1945년 8월 15일 광복		한국 학중 양연 구원

52 <부록>은 1967년 민족기록화전 전시샘플릿에 수록된 작품제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1967년 민족기록화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 현황은 박해성, 앞의 논문(2003)의 각주67, 김재범, 앞의 논문(2017)의 도표1, 최태만, 앞의 논문(2017)의 표1, 조기쁨, 앞의 논문(2019)의 표1에서 제시된 바 있으나, 작품 사진을 확인하지 못해 목록만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 간행 추정 1967년 민족기록화 엽서(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소장) 사진과 기록화 제작상황 사진(국가기록원 소장)을 최대한 확인해 해당 작품을 표에 수록했다. 아직 사진을 찾지 못한 박상옥과 임직순의 작품은 지속적인 확인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번	제목	작가 (생졸년/나이)	호수	주제 및 내용	작품	소장처
6	信託統治反對	이경훈 (1921~ 1987) 46세	500	1946년 1월 시민들의 신탁통치반대 집회		미상
7	砲兵의 軍神金 豊益 中領	김차섭 (1940~ 2022) 27세	500	1950년 6월 26일 의정 부 전선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포탄에 산화한 김풍익 중령		미상
8	傀儡軍 탱크를 手榴彈으로 破 壞하는 特攻隊 員	정창섭 (1927~ 2011) 40세	1000	6.25전쟁 당시 북한군 의 탱크를 수류탄으로 파괴하는 특공대원들		미상
9	L~4형으로 爆 彈을 投下하는 草創期の 空軍	곽 훈 (1941~) 26세	500	6.25전쟁 초창기 전투 비행 중 포탄을 투하하 는 공군의 활약		미상
10	敵戰車를 肉彈 攻擊하는 李根 哲 飛行團長	박광진 (1935~) 32세	1000	6.25전쟁 당시 공군 창 설의 주역이자 F-15편 대를 이끈 이근석 공군 비행단장의 활약		미상
11	陰城地區 包圍 섬 滅戰	박서보 (1931~ 2023) 36세	1000	1950년 7월 4~10일까 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 로, 국군이 거둔 최초의 승전		미상



연번	제목	작가 (생졸년/나이)	호수	주제 및 내용	작품	소장처
12	洛東江戰線 反政戰	윤명로 (1936~) 31세	1000	1950년 8월 4일~9월 18일 동안 낙동강 방어선을 두고 국군-유엔군-북한군이 벌인 전투로 국군과 유엔군의 승리		미상
13	海兵隊의 統營上陸	조용익 (1934~ 2023) 33세	500	1950년 8월 17일~9월 22일 동안 해병대가 추진한 통영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이 점령한 통영을 탈환		미상
14	學徒義勇軍의 奮戰	김종학 (1937~) 30세	1000	6.25전쟁 당시 학생신분으로 참전한 의용병의 활약상		미상
15	傀儡軍의 蠻行 (人民裁判과 良民虐殺)	임상진 (1935~) 32세	1000	6.25전쟁 동안 북한군이 자행한 인민재판과 양민학살을 주제로 한 그림		미상
16	仁川上陸作戰	이세득 (1921~ 2001) 46세	1000	1950년 9월 맥아더의 지휘 아래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해 전개한 군사작전으로, 서울 탈환 계기 마련		미상
17	서울市街戰 (9·28收復)	김영주 (1920~ 1995) 47세	1000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 서울 탈환을 위한 국군과 유엔군의 전투		미상
18	38線을 突破 北進하는 國軍 勇士	김성재 (1923~ 1968) 44세	500	1950년 인천상륙작전 후 국군과 유엔군이 패주하는 북한군을 쫓아 38선을 지나 북진함		미상








연번	제목	작가 (생졸년/나이)	호수	주제 및 내용	작품	소장처
19	牡丹峯에 돌입하는 1師團勇士	김숙진 (1931~) 36세	1000	인천상륙작전 후 38선을 지나 육군 1사단이 평양 대동강변 모란봉에 진입		미상
20	元山市民의國軍歡迎	장성순 (1927~ 2021) 40세	500	북진 후 1950년 10월 10일 국군과 유엔군이 원산에 진입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음		미상
21	鴨綠江에到達하여戰塵을 씻는 6師團 7聯隊勇士	이만익 (1938~ 2012) 29세	500	1950년 10월 26일 국군 6사단 7연대가 압록강의 초산에 도달		미상
22	大同江鐵橋를 건너는 平壤避亂民	박항섭 (1923~ 1979) 44세	1000	1950년 12월 폭격으로 무너진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피난 행렬		미상
23	38線以南으로 全面後退하는 避亂民과 國軍	윤형근 (1928~ 2007) 39세	500	1950년 10월 25일 중 국군의 6.25전쟁 개입에 따른 국군과 유엔군, 피난민들이 38선 이남으로 후퇴		미상
24	1·4後退	장리석 (1916~ 2019) 51세	1000	국군과 유엔군이 남한으로 퇴각 후 북한군이 1951년 4월 1일 서울을 다시 점령		미상
25	勝湖里鐵橋 爆破作戰	이봉렬 (1938~) 29세	500	1952년 1월 15일 공군이 북한군의 주요 물자 이동 통로인 평양 승호리철교를 폭파한 사건		미상



연번	제목	작가 (생졸년/나이)	호수	주제 및 내용	작품	소장처
26	九月山地區 遊 擊隊	김서봉 (1930~ 2005) 37세	1000	1951년 1·4후퇴 당시 황해도 구월산 일대에 잔류해 북한군과 싸운 유격대		한국 학중 양연 구원
27	YAK戰鬪機 를 擊墜하는 PF62艦	유경채 (1920~ 1995) 47세	1000	1951년 4월 16일 압록 강 하류 신미도 근해에 서 해군 PF62함대가 북 한군 YAK전투기를 격퇴		미상
28	水色防禦線의 敵殲滅戰	이 준 (1919~ 2021) 48세	1000	6.25전쟁 발발 후 국 군이 북한군의 서울 점 령을 저지하기 위해 1950년 6월 28일~7월 4일 동안 벌인 전투		미상
29	龍門山の血戰	오승우 (1930~ 2023) 37세	1000	1951년 5월 17일 중국 군의 공격을 받은 보병 제6사단 장병들이 총반 격해 승리한 전투		미상
30	兜率山の激戰	임직순 (1921~ 1996) 56세	1000	1951년 6월 4~20일까 지 해병대 제1연대가 북한군이 점령한 강원 도 양구의 도솔산을 탈 환한 전투	미상	미상
31	白馬高地 爭奪戰	문우식 (1932~ 2010) 35세	1000	1952년 10월 6~15일 까지 강원도 철원 백마 고지에서 중국군을 물 리치고 방어 확보에 성 공한 전투		미상
32	對地攻撃하는 F~51編隊	안재후 (1932~ 2006) 35세	500	1953년 도입 한국 최초 운용 전투기인 F-15의 대지공격		미상



연번	제목	작가 (생졸년/나이)	호수	주제 및 내용	작품	소장처
33	反共捕虜釋放	김 태 (1931~ 2021) 36세	500	1953년 6월 18일 남북 휴전협정을 앞두고 북 한, 중국 출신 포로 중 반공 성향의 포로를 석 방		미상
34	베틀高地의英 雄金萬述少 尉	이일영 (1925~ 2001) 42세	500	6.25전쟁의 마지막 전 투로, 김만술 소위가 주축이 되어 국군이 1953년 7월 15~16일 동안 중국군과 교전해 경기도 연천군 베틀고 지를 사수		미상
35	共產側說得官 에게 辱說을 퍼붓는 反共捕 虜	김종하 (1918~ 2011) 49세	500	공산주의로 전향을 강 하게 거부하는 반공 포 로		미상
36	4·19學生義 舉	한봉덕 (1924~ 1997) 43세	1000	이승만 정부 자유당 정 권의 1960년 3.15부정 선거에 따른 학생들의 항거		미상
37	李大統領下野 (4·19)	정상화 (1932~) 35세	1000	1960년 4.19의거에 따 른 이승만 대통령 하야		미상
38	革命軍의 漢江 渡河	박상옥 (1915~ 1968) 52세	1000	1961년 5.16군사정변 을 일으킨 박정희 소장 이 혁명군을 이끌고 한 강 인도교를 건넌 작전	미상	미상



연번	제목	작가 (생졸년/나이)	호수	주제 및 내용	작품	소장처
39	朴正熙將軍의 革命軍指揮	김인승 (1911~ 2001) 56세	1000	5.16군사정변 당시 박 정희와 차지철 등 혁명 군 지도부		미상
40	비둘기部隊 歡送式	박영선 (1910~ 1994) 57세	500	1965년 2월 9일 서울운 동장에서 열린 베트남 전 첫 파병 환송식		미상
41	白鷗部隊의 輸 送作戰	이마동 (1906~ 1981) 61세	500	1966년 베트남전 당시 메콩강을 누비며 군수 물자를 전지로 수송하 는 백마부대 함정		미상
42	비둘기部隊의 建設工事	이춘기 (1933~ 2003) 34세	500	1965년 베트남전 당시 비둘기부대의 건설지 원단이 도로 및 교량건 설 등을 지원		미상
43	朴大統領訪美	박득순 (1910~ 1990) 57세	1000	1965년 5월 16~27일 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미국 대통령의 초 청을 받고 미국을 방문		미상
44	國軍의 龜鑑 姜在求少領	이의주 (1926~ 2002) 41세	500	1965년 10월 4일 육군 강재구 소령이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훈련 중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 탄을 몸으로 덮쳐 순직		미상



연번	제목	작가 (생졸년/나이)	호수	주제 및 내용	작품	소장처
45	靑龍部隊의 캄 란上陸作戰 歡迎	최경한 (1932~ 2017) 35세	500	1965년 10월 9일 베트남 캄란灣에 상륙한 청룡부대가 캄란과 동바틴 지역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		미상
46	猛虎部隊의 귀 논上陸	김영창 (1910~ 1988) 57세	500	1965년 10월 맹호부대가 베트남 중남부 항구 도시 귀논에 상륙하는 장면		미상
47	장렬空輸團 李 源登上士	양인옥 (1926~ 1999) 41세	500	1966년 2월 4일 이원등 상사가 공수특전단 고공 침투 낙하 훈련 중 장비 고장이 나자 전우 대신 추락해 순직		미상
48	베트남을 掃蕩 하는 猛虎勇士	최덕휴 (1922~ 1998) 45세	1000	1966년 10월 베트남전에 파병된 맹호부대가 베트남과 교전에서 일련의 승리를 거두며 전투력 과시		미상
49	對民事業과 韓 越親善	이인영 (1932~ 2021) 35세	500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현지 대민지원 활동을 통한 한국-베트남 친선 도모		미상
50	殺身成仁 李仁 鎬少領	김형구 (1922~ 2015) 45세	500	1966년 8월 11일 베트남전 당시 동굴 수색 중 수류탄을 덮어 전우들의 생명을 구하고 산화한 이인호 소령		미상



연번	제목	작가 (생졸년/나이)	호수	주제 및 내용	작품	소장처
51	海軍驅逐艦의 間諜船擊沈	이용환 (1929~ 2004) 38세	1000	1966년 10월 10일 해 군 구축함이 울릉도 근 해에 남하하던 무장간 첩선을 발견하고 격침		미상
52	존슨美國大統領 領來韓	문학진 (1924~ 2019) 43세	1000	1966년 10월 31일~ 11월 2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 존슨 미국 대통 령의 시가 환영식		미상
53	靑龍部隊의 짜 빈동 大捷	정영렬 (1934~ 1988) 33세	1000	1967년 2월 14~15일 동안 남베트남 짜빈동 에서 일어난 한국 해병 대와 베트공 간의 격전 으로, 한국군 승리		미상
54	越南人을 놀라 게 하는 태권 道	박연도 (1933~) 34세	500	1964~1973년 베트남 전쟁기 동안 파병된 한 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약		미상
55	國立墓地	천칠봉 (1920~ 1984) 47세	500	순국선열이 안장된 국 립묘지		미상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67년 경복궁미술관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기록화 전시회를 대상으로 개최 배경과 과정, 후대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정치 선전물로 주로 인식되어 온 민족기록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1967년 민족기록화 제작과 전시는 최초의 시도였던 만큼 모든 역량을 투자해 진행했고 참여한 작가와 작품 규모 역시 이후의 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화가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500~1000호에 이르는 대형 화폭을 처음 다루면서 작가적 역량을 키웠고 이러한 경력을 발판으로 삼아 화단에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를 얻었다고 본다. 다만, 초창기 민족기록화의 주제가 전쟁 화에 집중되어 있었고, 두 달이라는 짧은 제작 기간으로 인해 충분한 역사적 고증과 표현 수준을 갖추지 못해 당시 미술계의 비판을 받았고 이러한 사회적 지탄은 작품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1970년대부터 첫 민족기록화 제작사업에서 노출된 문제를 보완하고자 자문위원회, 고증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추상화가 대세를 이룬 1960년대 화단에 구상화의 중요성과 유효함을 다시 인식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1967년 민족기록화전의 의의를 꼽을 수 있다.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작품의 현존 여부를 비롯해 화가들의 작업 방식과 경제적 보상, 구체적인 제작 과정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를 보완해 나간다면, 최초의 민족기록화전이 근현대미술사에서 갖는 위상도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24. 9. 20.

심사일 2024. 11. 22.

게재 확정일 2024. 11. 22.

주제어(keywords) 민족기록화(Korean heritage painting), 민족기록화전(Korean heritage painting exhibition), 역사화(historical painting), 구상화(figurative painting), 김종필(Kim Jongpil)



## Abstract

### Examination of the 1967 Korean Heritage Painting Exhibition

Hwang, Jung-yon

This paper aims to shed new light on ethnic record painting, which has long been dismissed as political propaganda, by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first exhibition of ethnic record paintings held in 1967 at the Gyeongbokgung Palace Museum and its impact on later generations.

The production and exhibition of the national documentary in 1967 was the first such attempt, with all efforts concentrated on its execution. In terms of the scale of participating artists and the number of works, it was the most prominent compared to subsequent projects. Artists, receiving overwhelming support, developed their creative abilities while working on large canvases ranging from 500 to 1000 in size. This experience provided them with an opportunity to solidify their standing in the art world.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early themes of ethnic documentation were centered on war, and the brief two-month production period resulted in insufficient historical verification and compromised artistic quality.

From the 1970s onward, the establishment of advisory and verification committees to address the issues revealed during the first ethnic documentation project can be considered a positive outcome of the 1967 Ethnic Documentation Exhibition. By supplementing research on the current existence of works, the working methods of artists, their economic compensation, and specific production processes,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National Record Painting Exhibition in 1967 can become even clearer within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